

제우스, 6축 다관절 로봇 '제로(ZERO)' 기부 행사 가져

- 전국 15개 기관 대상으로 산업용 6축 다관절 로봇 '제로(ZERO)' 기부 활동 펼쳐

LCD, 태양전지 및 반도체 업체 제우스(대표이사 이종우, 079370)가 국산 로봇 활용 확산 및 로봇 인력 양성을 위해 회사의 대표 제품인 산업용 로봇 '제로(ZERO)'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가의 로봇 도입이 어려운 학교 및 센터 등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8대가 무상으로 전달됐다. 제우스는 기부처 선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로봇 학과가 있는 고교 및 대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로' 기증식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로보월드 (Robot World 2019)' 개막식에서 함께 진행됐다.



▲사진 자료: 제우스 로봇 기증식에서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왼쪽에서 네번째)

'제로'는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등 산업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6축 다관절 로봇이다. 가격 경쟁성을 확보하고 빠르고 가벼운 제품 특징점까지 보유해 로봇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는 "항상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이번 기회로 정말 필요한 곳에 회사 제품을 기증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학 로봇 연구실 및 유관 연구소까지 기부처를 확대하여 기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한국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